

우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어항·항만기술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협회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선진 신기술의 보급과 어항개발을 위한 연구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물론 협회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협회는 앞으로 어항 선진국의 관련단체나 연구단체·학술단체와 더욱 교류를 빈번히 가짐으로써 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과 직접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수산업 발전과 어민을 위해서는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어항예산의 확대를 위해 관계요소에 술한 건의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다니며 피나는 노력을 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하나의 당부이다.

특히 어항산업이 중대한 국가기간산업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아직 확고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바 국민과 정부에 대한 홍보도 차체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협회에 거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기간산업차원에서의 어항산업 인식은 곧바로 어항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어항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출범하는 이상 우리 나라 어항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어항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다.

단,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게끔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을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보다 신뢰도가 높은 계획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어쨌든 한국어항협회의 법정법인 전환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항개발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 호기를 절대로 상실하지 않도록 협회와 어항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어항인상(象)을 대내외에 한번 과시해 보도록 하자. ㉠

## 어민 목소리 집약

# 정책결정 지원하는 협회로

丁 炯 泰 <(株)韓寧엔지니어링 社長>

우리 어항인의 숙원이던 어항법이 드디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어항협회

도 법정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실로 그 의의가 크다

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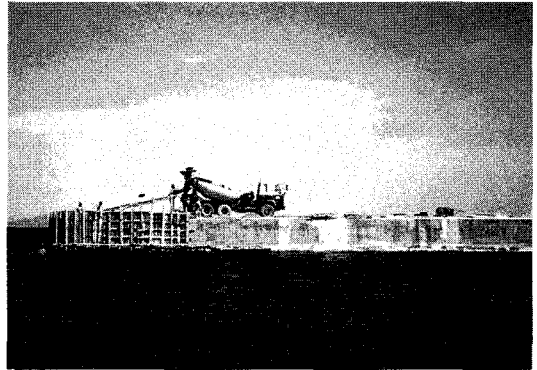
개정된 어항법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항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어항은 이제 어민과 어항인만의 장이 아닌 모든 사람의 휴식처이고 관광지이며 도시민과 지역민의 연결의 무대이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고적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하고 물이 필요하였으며 바다와의 애환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그리워하고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어항을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은 바다와 접하며 바다를 이용하고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다. 그러기에 엄마의 품과도 같은 만인의 고향인 어항은 삶의 터전으로서, 또한 그리운 안식처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즐기는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한동안 공업발전 일변도의 정책에 떠밀려 어항개발이 너무 소외되고 어민을 포함한 어항인은 어려운 생활과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무궁한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만인의 욕구는 물론 어민과 어항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는 물론 어항인 모두는 각오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항법에서도 어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어항과 어촌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차체에 우리 협회는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을 만들고 어민 편의시설과 어항 기능시설을 확충하여 어민



생활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첫째, 어항의 계획, 개발 및 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당국에 건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둘째, 어항법에서 권장하는 민간자본에 의한 어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셋째, 어민과 어항인의 사랑방이 되어 어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집약하여 균형있고 편중되지 않는 일관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개방된 협회, 연구하는 협회, 능력있는 협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회원은 물론 어항인 모두가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협력하며 낙후된 어촌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관 대민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뿐 아니라 어항개발 및 관리의 제도적인 제한성 및 취약성을 완화 개선하여 어항개발에 가능한 한 친수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주민이 어항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선진국의 어항과 같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어항에 대한 친화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계도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